

壓水型 2기)는 内外共同的 設計에 中共主體의 技術과 貿易結合方式을 취해 自國 技術陣에 의 해 보다 많은 技術습득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日本이나 프랑스, 西獨의 연구, 생산부문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대하여 學術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 中共은 관계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술의 발전을 촉진코자 시도하고 있다.

核工業省은 또 30여개국의 지역으로 부터 4百名の 代表와 學者를 받아들임으로써 延人員은 2千여명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千餘의 視察이나 國際學術會議참석을 위해 外國에 파견하여 국제적인 原子力科學技術交流와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中共의 40여개소의 연구, 설계, 教育부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약 50여개의 연구협약을 맺고 있으며 그 내용은 우라늄產出地質, 核燃料, 原子動力, 폐기물처리, 放射線 放護, 同位元素의 응용 등 각 분야에 미치고 있다.

中共은 1984년 IAEA에 正式加入한 이래 국제적 활동에 적극 참가해 왔으며 또 自國의 원자력시설을 이용하여 IAEA의 국제원자력기술 훈련을 개설, 발전도상국 특히 아시아太平洋지역 여러나라를 위해 100여명의 기술자를 양성했다.

원자력평화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中共은 國力更生의 原則을 기본으로 外國의 先進技術과 經驗을 배우는데 힘써으로써 原子力技術의 응용을 촉진하고 있다.

主權尊重과 平等互惠의 原則을 基礎로 국제적 원자력기술 교류와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核非擴散의 原則的 입장을 견지하며 원자력 재료와 설비 도입에 있어 平和的 목적에 사용할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한편 수출에 있어서는 IAEA의 보장조치를 받아들일도록 하고 있다.

中共은 세계각국과 原子力分野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平和的 利用을 진척시켜 나감으로써 人類의 幸福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廣東原電, 本館工事 着工

중공의 廣東省 大亞灣原子力發電所 本館工事が 8月7日 正式 착공되었다.

現場에서 原子爐 基礎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고 李鵬 副首相이 이 工事を 담당하는 廣東原電 合弁公司에 祝電을 보냈다.

蔣心雄 原子力工業相, 葉選平 廣東省長, 周平 國務院原子力發電合弁公司主任, 姜聖階 國家原子力安全局長 등이 着工式典에 참가했다.

廣東原電合弁公司의 總經理(社長)는 이 자리에서 安全第一, 品質第一의 方針을 견지하면서 大亞灣原電을 훌륭히 건설해 보아겠다고 말했다.

이 着工式에 이어 HCCM原電建設合弁會社에 의한 2基의 原子爐와 土木·建設工事が 全面的으로 展開되며, 그외에 海邊의 水理工事, 補助施設의 土木·建設, 原子爐建物の 安全裝置 등의 工事도 入札되어 契約을 체결하는데로 施工에 들어가게 된다.

스페인

原子力發電量 增加率 記錄的

스페인의 1987年度 1/4 分期의 原子力發電量은 昨年の 同期間에 비해 32.9% 더 增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電力會社協議體인 Unesa 協會가 밝혔다. 이 記錄的인 增加趨勢는 同期間中の 西유럽의 原子力發電量의 平均增加率 8.6%와는 좋은 對照를 이룬다. 스페인의 電力會社들은 2基의 BWR, 5基의 PWR, 1基의 가스-黑鉛(Magnox)爐를 稼動시키고 있으며 2基의 PWR이 今年과 來年에 各各 追加로 系統에 投入될 豫定이다.